신학기 되자마자… 여고생 집단 폭행

피해 학부모 "5시간 동안 공원·건물 옥상서 딸 구타당했다" 고소장

"학교측에 피해 사실 알려도 수수방관 피해 키워"

학교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학기가 되자마자 한 여고생이 10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학생은 이번 사건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입원해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전에도 학교 폭력이 반복돼 학교 측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으나 방조하는 바람에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피해학생 부모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모 여고 3학년 A(18)양의 어머니는 최근 "딸이 지난 27일 오후 1시께부터 6시까지 5시간 가량 학교 인근 공원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김모(18)양 등 10여명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이날 정오께 학교 급식실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김양과 조모(18)양, 서모(18)양 등과 마주쳤고, 이들에게 이끌려 학교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려가 1시간30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A양을 학교 인근의 빌라 5층 옥상으로 끌고갔고, A양은 기다리고 있던 같은 학교 최모(18)양을 포함해 동급생 및 후배, 그리고 다른 학교 여고생 2명, 남고생 2명 등 10여명에게 둘러싸여 3시간30분가량 구타당했다는 것이 어머니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고, "폭행 사실을 알리면 또 혼내겠다. 다른 4명도 우리에게 혼났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이날 밤 늦게 학교 교사들과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딸의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외투를 덮어씌우고 머리, 배 등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며 "특히 딸이 팔로 방어하면 다른 학생들이 양팔을 붙잡고 폭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인 김양은 딸이 2학년이 되면서부터 단체로 따돌리며 문자폭력 등으로 죽일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며 "지난해 말에는 딸의 가방이 칼로 찢기기도 했고, 아이들이 사물함을 부수고, 어깨를 치면서 욕설을 지속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딸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전학을 요청해 담임선생님과 학생부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학교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양 학교 교장은 "학교 밖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사실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보,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국 일진이 2831명?

경찰, 개학 앞두고 학교폭력 졸속 통계 공개 논란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일진' 조직과 참가 학생 수를 공개했으나 이 통계수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통계는 공개하면서 지역별 조직 및 참가 학생 수를 비공개로 한데다 일부 지방경찰청은 여전히 일진 조직을 파악중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일선학교 개학을 앞두고 졸속으로 '설익은'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5일 "경찰이 관리중인 '일진회', '짱' 등 일진이 165개 28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각 지방경찰청 강력계로부터 '일진이라는 명칭을 갖고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았거나 범죄 우려가 높은 학생 조직'을 제출받은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 통계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강력계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이 같은 통계수치를 집계하는데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강력계와 청소년 범죄를 맡고 있는 여성청소년계의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범행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일진으로 129개 1672명을, 학교폭력이 우려되는 선도대상으로 36개 1159명을 분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선 학교의 일진 조직에 대해 여전히 파악중이다"며 "자료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추후 지역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내부적인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본청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자료의 신빙성이나 일선 학교와의 마찰 우려 등으로 본청에서 지역 통계는 발표를 보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0세부터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일본 뇌염·수두 등)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은 채 예방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간 욕심 못참고…

현금 인출기 돈 훔친 절도범 잇따라 검거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훔친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진 돈을 훔친 박모(여·43)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55분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은행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에 놓인 김모(31)씨의 현금 2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또 서부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친 박모(2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40분께 서구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내 현금인출기에서 노모(여·36)씨가 놓고 간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다.

또 이날 박모(40)씨가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38분 서구 풍암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인 김모(여·44)씨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서부경찰에 붙잡히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주부, 학생, 노동자 등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의 욕심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인 없는 돈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檢, 박은정 검사 진술서 경찰에 넘겨

기소청탁 의혹 조사 방침

검찰이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공개된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서를 5일 경찰에 넘겼다.

관련 고소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자신의 진술서를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왔기에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 사건 관련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검사 본인이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겠다"며 진술서를 검찰에 보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검사 측이 보낸 진술서를 봉해진 채로 검찰에 전달했다"며 "서류봉투를 뜯지 않았기에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의 진술서를 건네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청탁 의혹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업로드된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기소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박 검사는 지난 2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사직서를 반려한 뒤 휴가 처리한 상태다./연합뉴스

차량털이 10대 둘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5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유모(18)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지난 26일 새벽 3시46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황모(32)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25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매 등 모두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학생들에 상습 금품 갈취

완도경찰은 5일 중·고등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이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교를 중퇴한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완도 중·고등학교 학생 50여 명으로부터 100여 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범서방파 김태촌 혼수상태

심장마비 서울대병원 입원

국내 폭력조직의 거물 김태촌(62·사진)씨가 심장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서울대병원은 5일 "1970~80년대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 김씨가 지난 3일 오전 응급실에 실려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가족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병명이나 상태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씨는 지인 김모(48)씨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4월 초순부터 약 한 달간 기업인 한모(57)씨를 청부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8일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폐렴증세로 지난해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과거 폐암수술로 한쪽 폐가 없는 상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는 가족, 지인, 후배 등이 수시로 김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출신인 김씨는 1970년대부터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범서방파 두목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뒤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폭행사건 등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탤런트 권상우 협박사건 당사자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해남 목조 주택 불 3400만원 재산피해

5일 오후 2시32분께 해남군 황산면 우황리 김모(76)씨의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불로 김씨의 주택과 마당에 있던 1t 트럭이 전소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당시 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불길이 집 중앙 부근에서 치솟았다"는 집 주인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경쟁 태권도장 플래카드 불 질러

쌍나팔

○…20대 태권도 사범이 술김에 경쟁 태권도장의 광고 플래카드를 태웠다가 인근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혀 들통.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태권도장에 사범으로 일하는 박모(26)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한 아파트 담벼락 등에 걸려진 태권도장의 관원 모집 플래카드 4장에 불을 붙여 훼손했다는 것.

○…경쟁 태권도장의 신고로 경찰에 출두한 박씨는 "경쟁 태권도장 사람들이 도장 근처에 플래카드를 내걸어 화가 나 술에 취한 김에 그랬다"며 후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4월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9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강력단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